

6월 5주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요

-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9~14절 (6월 29일 본문)
- **포인트:**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음을 인정하고 순종해요.

≡ 1. 찬양

(경배와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 2.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해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세요.

≡ 3. 말씀

열왕기하 5:9~14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9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3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 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말성경>

9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10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요.” 11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12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13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14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 ≡ 본문 이해

아람의 군대 장관(군사령관) 나아만이 나병(악성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북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의 심부름꾼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면 낫는다고 전하자,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 했어요. 결국 종들의 설득을 받아들여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나아만은 깨끗이 나왔어요.

###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던 국가이며,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본문은 아람 왕의 충애를 받던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아만은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나병(악성 피부병)에 걸렸어요.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애쓰는 모습을 지켜본 북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종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나아만은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먼저 북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지만, 무능하고 믿음이 없는 북 이스라엘 왕은 나병을 고쳐 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며 절망했어요. 아람이 북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기록을 볼 때(왕하 5:2) 당시 아람의 군사력이 북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음을 알 수 있어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엘리사는 만나 주지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고 전했어요. 이에 나아만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아람의 아름다운 강 아바나와 바르발과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고 작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는 화를 내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했고,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어요. 그러자 그의 몸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돼요.

## ≡ 4. 나눔

1) 엘리사가 보낸 심부름꾼의 말에 화를 냈던 나아만은 결국 어떻게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나요?(10~14절)

### ■ 저학년

나아만 장군의 병은 어떻게 깨끗이 낫게 되었나요?(14절)

### ■ 유아·유치

나아만 장군의 병은 어떻게 낫게 되었나요?(14절)

### □ 질문 가이드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화를 했지만, 결국에는 생각을 꺾고 그 말에 순종해요. 치유를 맞본 나아만은 강물에 치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돼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나누어 보세요.

###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아람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은 자연에 신적 능력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이 크고 화려하면 신적 능력이 충만한 것으로 여겼어요. 한편 요단강은 신적 치유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강이었어요. 특히 우기가 아닌 건기에는 더욱더 초라해 보였지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고자 했어요. 요단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 주시려고 한 거예요. 사람의 계산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볼품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2)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선뜻 순종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일에 대해 어떤 결단을 하면 좋을까요?

■ **저학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고 선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나요?

■ **유아·유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 **질문 가이드**

우리는 나아만의 피부병 같은 인생의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게으름, 친구 관계, 예배 태도, 말과 행동, 습관에 있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강에 들어가기를 망설이던 나아만처럼 우리도 바른 것을 선택하기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나아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임을 알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알면서도 내 욕심을 위해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사 55:8~9).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사 55:8~9).

≡ **5. 감사하기**

하나님 말씀이 옳음을 믿으며 순종한 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일에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저희 생각보다 항상 높고 크심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 주세요.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